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치의학대학원
	김시형 전화: 740-8607, 이메일: syeongkim@snu.ac.kr

배포일: 2024.6.17.(월)

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국제모자구강보건센터,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아카데미 파트너 선정 및 케냐 킬리피 지역 현지조사 진행

□ 서울대학교 국제모자구강보건센터(센터장 이해원)는 KOICA에서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관하는 ‘2023-24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(아카데미 파트너)’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, 지난 4월 아프리카 케냐 킬리피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.

□ 해당 프로젝트는 케냐 킬리피 지역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 및 일차진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, 킬리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 모자보건 모델에 국제모자구강보건센터 연구팀의 주요 연구 분야인 구강보건을 융합하고자 한다. 또한, 현지의 간호사 등 일차진료 인력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. 모자보건은 출산 전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진료를 의미하며, 일차진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. 표적인 조치로는 산전/후 모성 건강 검진 및 건강교육, 영유아의 백신접종 등이 있다.

□ 모성 건강 검진을 위해 매일 킬리피 현 병원(Kilifi County Hospital)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, 구강건강을 지키는 구강 관리 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골자이다. 이를 수행하는 인력인 킬리피 현 병원의 간호사를 최초의 일차진료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주요 골자이다.

□ 영유아기 모자 구강보건 증진의 중요성은 세계 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.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구강건강이 자녀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,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. 구강보건은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, 구강 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은 대상지 영유아와 보호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.

□ 4월 20~28일 진행된 케냐 킬리피 및 나이로비 현지 조사를 통해, 킬리피 현 병원의 주요 인사 및 아가칸 대학교 모성연구소(Aga Khan University Centre of Excellence in Woman and Child Health)의 Marleen Temmerman 소장 등 현지 파트너와 미팅을 진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. 상급종합병원인 킬리피 현 병원을 시작으로 4차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구강보건 증진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. 또한, 케냐 나이로비의 KOICA 케냐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였다.

□ 해당 프로젝트 연구팀의 **이혜원** 교수(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국제모자구강건강센터장)는 “그동안 구강건강은 일차의료에서 제외되어 특수진료, 별도의 진료라고 여겨져 왔습니다.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듯, 구강건강서비스는 **필수일차 의료**로서 다루어져야 하며, 개발도상국과 소외지역의 부족한 치과진료 인력을 고려하여 일차의료인력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교육과 예방적 진료로의 접근이 필요

하다. 특별히 구강건강은 일차의료의 중심인 모자건강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융합되어야 하며 보호자, 특히 어머니는 어린이의 식습관과 위생습관을 길러주고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, 본 사업은 기존의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된 구강교육과 진료모형을 제시한다” 며 케냐 킬리피 지역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.

케냐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킬리피 현 병원 일차진료담당관 Edward Mumbo는 “케냐에서 국가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네트워크에 맞추어 킬리피지역정부도 일차의료에 집중하고 있다. 구강건강교육과 진료를 일차의료에 특히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하는 현 사업은 현존하는 구강교육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” 며 기대를 전했다.

□ 센터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‘2025년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입형·성장형 파트너십사업’에 공모하여 케냐 킬리피 지역에서 모자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전망이다.